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김고운* · 라경흠** · 최원욱***

〈요 약〉

본 연구는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보고될 때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 기간 동안 특히 중요하게 판단한 사항으로 법인세 계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정이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되었을 때 이러한 사항이 기업의 BTD에 대한 정보적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분석 표본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법인세 관련 계정을 보고한 상장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기간은 회계감사 기준 개정으로 모든 상장사에 핵심감사사항 보고 의무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관련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BTD가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 노력이 산업 평균보다 클수록 이러한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추가로, 감사인이 Non-Big 4 회계법인일 경우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의 BTD 확대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와 세무당국에 조세회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단순히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조세 행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 노력 증대를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Non-Big 4 감사인의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핵심감사사항(KAM), 조세회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BTD), 감사보고서의 정보적 역할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cpa_gracekim@yonsei.ac.kr, 주저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rkh3434@yonsei.ac.kr,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wonchoi@yonsei.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25년 1월 15일

1차수정일 2025년 2월 13일

2차수정일 2025년 3월 2일

3차수정일 2025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20일

I. 서 론

우리나라는 2017년 회계감사 기준 개정을 통해 모든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핵심 감사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ISA 701-8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판단한 사건(most significant) 중에서 지배기구와 논의한 사항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의미 있는 주의와 판단을 해야 하는 항목이다.

본 연구는 감사인이 기업의 법인세 계정을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핵심감사사항의 정보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 계정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감사인과 경영진 간 정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정 계산서는 세무 당국을 제외한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없는 기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로 외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¹⁾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를 조세회피 행위의 측정치로 채택하였다. BTD(Book-Tax Difference)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경영자의 이익 조정 및 조세회피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지표로 평가된다(Desai and Dharmapala 2006).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ETR²⁾보다 BTD가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 지표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법인세 관련 계정이 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으로 공시되었다는 것은 감사 수행 시 해당 계정이 중요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다른 계정보다 자세히 검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인이 해당 계정에서 불확실성과 감사위험을 높게 인식했음을 나타내며 법인세 비용이 동종 업계 또는 전기 추세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지면 감사인이 이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ETR은 감사인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보로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기업이 감사인의 주의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식은 감사인이 감지하기 어려운 BTD 금액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으며, BTD는 복잡한 조세회피 행위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셋째, 경영자는 주가 상승이나 성과 보너스 등과 연계된 회계이익을 최대화 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유인에 따라 경영자는 과세소

1) [주총·회계제도 대해부] “세무조정내역 공개 ... 투명성 높일 대책 필요”, 조세일보, 문성희, 2015.05.06. “https://m.josailbo.com/news/view.htm?newsid=256711#_enliple”

2)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는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GAAP ETR)과 현금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CASH ETR)이 있다.

득은 최소화하면서도 회계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익 조정을 수행하며 그 결과 BTD가 커지게 된다. Hanlon과 Heitzman(2010)은 경영자가 세금을 줄이면서 이익 조정을 수행하는 경향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ETR 대신 BTD를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함으로써 감사인이 감지하지 못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BTD는 기업의 복잡한 조세회피 전략과 경영자의 성과급을 반영하는 데 적합한 지표로 평가되며 경영진이 감사인이 판단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할수록 BTD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감사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핵심감사사항의 정보적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핸드컬렉션(hand-collection)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표본은 총 2,867 기업-연도로 구성되었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Desai와 Dharmapala(2006)의 연구에서 제안한 이익 조정 요소를 제거한 BTD의 잔차 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BTD가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계정이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감사인이 법인세 계정을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한 것은 해당 항목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경영진이 감사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둘째, 핵심감사사항으로 법인세 계정을 보고한 기업의 BTD간의 관계를 완화해 주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감사인이 투입한 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회계 및 세무 간의 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인이 더욱 철저하게 감사를 수행할수록 조세회피가 줄어들어 감사 품질과 세무 보고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추가로, 감사인이 Non-Big 4 회계법인인 경우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에서 BTD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Non-Big 4 감사인이 조세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이 감사인의 전문성과 자원을 고려해 조세회피 전략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Non-Big 4 감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학술 및 실무적 공헌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와 세무당국에게 중요한 경고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될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감사사항이 기업의 조세 행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외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감

사인의 노력 증대를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감사 시간의 증가가 감사 품질과 재무 및 세무 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Non-Big 4 감사인의 감사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감사제도 개선과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규제당국 및 이해관계자에게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서술하였으며, 제 II 장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연구모형을 제시한 뒤 연구 표본의 선정 및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V 장에서는 강건성 분석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에서는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었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 가설

1. 선행연구

가. 핵심감사사항

본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흐름과 차별성을 설명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의 역할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2015년 국제 감사 및 보증 표준 위원회(IAASB)는 감사보고서의 품질과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감사보고서를 도입하였다(Vanstraelen et al. 2012). IAASB 700은 기존 감사보고서의 구조와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국제 감사기준 701(ISA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KAM)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도입되었다(IAASB 2015).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한 사항으로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 감사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선정되며 재무제표 이해관계자에게 주요 감사 이슈와 감사 절차를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고된다. KAM 선정 과정에서는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높은 영역이나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회계처리를 먼저 식별한 후 감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으로 명시하고 선정 이유와 수행된 감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에 KAM 보고가 의무화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코스닥 상장기업과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비상장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중소기업(SME), 공익법인 및 비영리기관, 초도 감사 등 일부 조건

을 충족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관련 연구 흐름에서는 핵심감사사항이 감사품질과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연구가 되었다(Wei et al. 2017 ; 하미혜 등 2018 ; 인창열과 이명곤 2019 ; 마희영 2021 ; 정기위와 채수준 2022). Wei et al.(2017)은 호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감사사항 공시가 감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핵심감사사항 공시 자체만으로는 감사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핵심감사사항과 비슷한 맥락으로 Reid et al.(2019)은 영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s(RMM)의 공시가 감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RMM 공시가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고 재무 분석가 예측 충족 빈도를 낮춤으로써 감사 품질을 향상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³⁾

국내의 관련 연구로, 하미혜 등(2018)은 핵심감사사항 도입 이후 감사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입 이전보다 감사품질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창열과 이명곤(2019)은 수주산업을 대상으로 KAM이 도입된 전후 2년 동안 KAM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사 시간이 증가하고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감소와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수익률 변동성으로 측정한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발견하여 핵심감사사항이 정보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반면, 신혜정과 김수인(2019)은 수주산업의 핵심감사사항과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핵심감사사항 도입 이후에도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 관련성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정기위와 채수준(2022)은 핵심감사사항이 감사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대형 회계법인과 감사 보수가 높은 감사인에게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주었다. 양가보와 정주렴(2023)은 핵심감사사항 공시 항목 수와 정보 유용성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핵심감사사항의 공시는 재무분석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보 환경이 불리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핵심감사사항의 공시는 재무 분석가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핵심감사제가 도입된 경우 재무 분석가의 이익 예측 오차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핵심감사사항 항목 수가 증가할수록 재무 분석가의 수익 예측 오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예측 정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핵심감사사항이 감사 품질 제고와 정보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3) RMM은 IAASB에 의해 정의되고 규정된다. 특히 ISA 315(감사에서 위험 식별 및 평가)와 ISA 330(식별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서 RMM과 관련된 감사인의 역할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RMM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며, 감사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는 국제적인 감사 표준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감사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핵심감사사항의 정보적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세무당국에게 조세회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제시하며 이러한 점에서 차별성과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다수의 관련 선행 연구들이 핵심감사사항의 도입 여부나 기재 숫자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감사사항의 효과를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핵심감사사항의 기재 내용 중 법인세 계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를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인세 계정 관련 사항이 실질적으로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될 때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나. BTD의 조세회피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로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방법론, 특히 BTD에 중점을 두고 있다. BTD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에 대한 정보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이익의 질 및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탐구한다. BTD는 이익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Joos et al.(2000)과 Mills and Newberry (2001)는 BTD가 클수록 이익의 질과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Phillips et al. (2003)과 Hanlon(2005)은 일시적 차이가 큰 회사일수록 미래 이익의 지속성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업이 회계상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세무상 이익을 줄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경우 BTD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Phillips et al.(2003)은 경영자가 발생액을 조정해 이익을 조정할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 BTD가 확대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BTD가 클수록 경영자의 이익 조정 의도가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조세회피를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분석하며 경영자가 자원을 유용하면서 동시에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통해 장부 소득과 과세 소득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과정을 수식으로 보여주었다. Frank et al.(2009)은 기업이 Book-Tax Conformity(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합성)를 활용하여 동일한 보고 기간에 장부 소득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 소득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기업들이 영구적 차이를 이용해 세무상 이익을 조절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주인기 등(2005)이 BTD가 비경상 항목 및 특별 항목 등을 통한 기업 행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정보적 유용성이 높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BTD는 기업의 복잡한 조세회피 전략 및 경영자의 성과급을 반영하는 데 적합한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경영진이 감사인이 판단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할 경우 BTD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BTD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의 질과 지속성,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된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 BTD의 조세회피

감사인인은 경영진의 재량적 판단을 견제하고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공격적 조세 계획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Kanagaretnam et al. 2016). 특히 대형 회계법인(Big N)이 감사에 투입된 경우 조세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감사 품질과 감사 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 억제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감사 품질은 독립성과 전문성의 함수로 이루어지며(De Angelo 1981) 이 두 요소는 경영진의 재량적 판단을 통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독립성 측면에서는 주기적 지정제도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적격성 측면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인이 충분한 “Due Car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헌과 백원선(2006)은 감사 품질이 낮아질 경우 경영진의 재량적 판단을 견제하는 기능이 약화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 품질과 감사 노력이 부족할 경우 조세회피와 같은 비윤리적 행동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McGuire et al.(2012)은 외부감사인이 조세전문가로서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감사인의 독립성은 약화하며 피감 기업의 법인세 조세회피에 대해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에 착안하여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강제 교체제도(임유니와 김종일 2019)와 주기적 지정제도(정희선과 김도영 2024)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한편, 감사 시간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박한순 등(2013)은 비상장 감사 시간이 클수록 BTD(Book-Tax Difference)로 측정한 조세회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배성호와 오광욱(2016)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감사 노력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억제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는 신외감법 도입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의 연구들은 감사 시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감사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수록 조세회피가 억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정희 등(2023)은 표준감사 시간을 충족한 기업이 미 충족한 기업보다 조세회피가 낮으며, 실제감사 시간이 표준감사 시간을 초과할수록 조세회피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종일과 이윤정(2024)은 ESG와 조세회피 간의 양의 관계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박종일 등(2024)은 실제감사 시간이 표준 감사 시간 대비 클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표준감사 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평균 대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

업 평균보다 감사 시간이 높게 투입되었는지가 조세회피를 유의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핵심감사사항은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높이고자 도입된 항목이다.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정이 감사인이 보기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는 감사인이 해당 계정의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였음을 의미하며, 기업이 이를 중심으로 조세회피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법인세 관련 계정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으로 경영진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은 경영진이 미래 이익과 과세소득을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과대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익 조정 및 조세회피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Phillips et al. 2003 ; Hanlon 2005 ; Blaylock et al. 2012). BTD(Book-Tax Difference)는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경영자의 이익 조정 및 조세회피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지표로 평가된다. Hoopes et al.(2024)는 조세회피 방식을 크게 일치 세금계획(Conforming tax planning)과 비일치 세금계획(Nonconforming tax planning)으로 구분한다. 일치 세금계획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으로 조세 리스크는 낮지만 회계이익이 줄어들어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비일치 세금 계획은 회계이익은 유지하면서 과세소득만 줄이는 방식으로, 더 정교하고 복잡한 조세회피 전략을 포함한다. 법인세 계정이 KAM으로 보고될 때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먼저, 법인세 계정이 KAM으로 보고될 경우 감사인은 해당 항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감사위원회 및 내부 통제 기구의 감시 수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KAM 공시를 통해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세금 계획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BTD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법인세 계정이 KAM으로 보고되었음에도 기업이 감사인의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비일치 세금 계획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업은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활용해 더 복잡하고 정교한 조세회피 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감사 범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외부 이해관계자가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 이 경우,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일치 세금 계획을 사용하며 BTD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므로 핵심감사사항이 법인세 계정과 조세회피 행위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정보적 유용

성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KAM)으로 보고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BTD)가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세 관련 계정이 핵심감사사항(KAM)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정이 감사인이 보기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 시간이 충분히 투입되면 경영진의 복잡한 회계 처리와 조세회피 행위를 더 면밀히 분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BTD를 감소시키고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조세회피 억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감사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모든 조세회피 전략을 완전히 감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비일치 세금계획(nonconforming tax planning)은 감사 범위 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감사 자원의 한계로 이러한 전략을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Frank et al. 2009 ; Hanlon 2005). 따라서 감사 시간이 충분히 투입되었음에도 핵심감사사항 보고와 BTD 간의 조절 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예측과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감사인이 산업 평균보다 높은 감사 시간을 투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핵심감사사항 보고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조절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III. 연구 설계

1. 표본 설정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될 경우, 이것이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정보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한다. 먼저, 한국상장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이며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하였다.⁴⁾ 이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표본 상장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4) 한국에서는 수주 산업에 한정하여 2016년부터 핵심감사사항을 적용하였으며 IASSB 701호의 발표에 따라 2018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2019년에는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기업,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제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업을 제외한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표본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으로 한정하였다.

에 접근하여 모두 핸드컬렉션(hand-collection)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가령, 사업보고서의 “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에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핵심감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핵심감사사항의 모든 항목을 수집한 후, 그중 법인세 계정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⁵⁾ <부록 B>에 2021년 LG디스플레이(주) 사업보고서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후, TS2000에서 주요 변수와 통제변수 생성을 위해 필요한 재무 자료,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인 명단, 그리고 세무 보고 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기업 데이터와 결합하였다. 결합 결과, 최종 기업-연도별 표본은 2,867개로 나타났다. 자세한 기업-연도별 표본 선정 과정에 관한 내용은 <표 1>의 Panel A에 제시하였다. <표 1>의 Panel B는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보고한 표본 비율을 나타낸다. 표본 중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은 468개로, 이는 전체 표본의 약 16%를 차지한다. 반면, 핵심감사사항을 1개 이상 보고한 기업은 2,399개로 전체 표본의 약 84%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기업이 최소 1개 이상의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표 1>의 Panel C는 핵심감사사항 내용에 따른 표본의 비율을 보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 평가 및 검토를 보고한 기업-연도가 49개로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보고한 기업-연도는 6개(10%), 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 보고한 사례는 3개(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94%의 기업-연도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항목을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하였다.

〈표 1〉 기업-연도별 표본의 설정

Panel A. 표본 설정 과정	
2020년-2022년 KOSPI와 KODAQ (비금융업,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자료 제공) 상장기업	6,697
제외 :	
자산 관련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기업	(167)
조세회피 및 통제변수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기업	(3,363)
최종 기업-연도별 표본	2,867

표는 기업-연도별 표본 설정 과정을 기술한다.

5) 일부 기업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핵심감사사항을 각각 별도로 기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재무제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핵심감사사항 항목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기업-연도별 표본의 설정 (계속)

Panel B.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표본 비율		
핵심감사사항 보고 개수	표본수	비율
0	468	16.33
1	1,836	64.04
2	418	14.58
3	93	3.24
4	27	0.94
5	22	0.77
6	1	0.03
7	2	0.07
최종표본	2,867	100

표는 핵심사항을 보고한 표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Panel C. 핵심감사사항의 내용에 따른 표본 비율		
핵심감사사항 내용	표본수	비율
법인세회계처리의 적정성	3	5%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및 검토	49	84%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추정의 불확실성)	6	10%
총 계	58	100%

표는 핵심사항의 내용에 따른 표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2. 연구모형

가. BTD(Book-Tax Difference)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세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BTD)와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안한 BTD에서 이익 조정 요소인 총 발생액을 제거한 방법을 사용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BTD가 조세회피 증가 또는 이익 조정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착안해,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차감한 총 발생액 값을 이익 조정 행위의 대응치로 보아 세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BTD)중 이익 조정 행위를 제거하여 그 나머지 값을 조세회피금액으로 추정한다. 해당 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금액은 식(1)을 통해 도출되며 식(1)의 잔차 값을 조세회피 금액으로 추정한다.

$$BTD_{i,t} = TA_{i,t} + \epsilon_{i,t} \quad (1)$$

여기서,

$BTD_{i,t}$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 [(법인세차감전이익-세무상 이익6)/기초총자산] ;

$TA_{i,t}$ =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기초 총자산 ;

$\epsilon_{i,t}$ = 조세회피 측정금액(DD_BTD).

나. 연구모형의 도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될 때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아래 식(2)과 같다.

$$DD_BTD(BTD)_{i,t} = B_0 + B_1 KAM_TAX_{i,t} + \sum CONTROL + \sum YEAR + \sum IND + \epsilon_{i,t} \quad (2)$$

여기서,

$DD_BTD_{i,t}$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를 발생액에 연도 및 산업별로 회귀분석하여 추정된 잔차 ;

$KAM_TAX_{i,t}$ = 당기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에 “법인세” 관련 항목을 공시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sum CONTROL$ = 통제변수($SIZE$, LEV , $LOSS$, MTB , CFO , $BIG4$, LN_FEE , LN_HOUR , PPE , $INTAN$, ROA , $EQINC$) ;

$\sum YEAR$ = 연도별 더미 ;

$\sum IND$ = 산업별 더미 ;

$\epsilon_{i,t}$ = 잔차항.

종속변수, $DD_BTD_{i,t}$ 는 BTD 를 발생액에 연도 및 산업별로 회귀분석하여 추정된 잔차이다.

- 6) 여기서, 세무상 이익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도출한다. 세무상 이익=[(당기 법인세비용+(당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총액-전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총액)-(당기 이연법인세 부채-전기말 이연법인세 부채)]/법인세율, 법인세율 적용시 과세표준별 상이한 세율을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였으며, 2023년 법인세율 개정으로 하기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김선미 등 2020 ; 서반석과 김갑순 2024).

과세표준	세율	
	2018.1.1 이후	2023.1.1 이후
2억 이하	10%(주민세율 반영 11%)	9%(주민세율 반영 9.9%)
2억 초과	20%(주민세율 반영 22%)	19%(주민세율 반영 20.9%)
200억 초과	22%(주민세율 반영 24.2%)	21%(주민세율 반영 23.1%)
3,000억 초과	25%(주민세율 반영 27.5%)	24%(주민세율 반영 26.4%)

$BTD_{i,t}$ 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기초 총자산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주요 독립 변수, $KAM_TAX_{i,t}$ 는 당기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에 “법인세” 관련 항목을 공시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B_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일 경우,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BTD 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B_1 이 유의하지 않다면 핵심감사사항 보고 여부가 조세회피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는 BTD 를 기반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SIZE$), 부채 비율(LEV), 당기 순영업 이익 손실 기업 여부($LOSS$), 순자산 장부금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MTB), 영업현금흐름(CFO), 4대 법인 감사인 여부($BIG4$), 감사 보수의 자연 로그 값(LN_FEE), 감사 시간의 자연 로그 값(LN_HOUR), 유형자산(PPE), 무형자산($INTAN$), 수익성(ROA), 그리고 지분법 관련 손익($EQINC$)을 포함하였다(박미영 2012 ; 박한순 등 2013 ; 이해영과 최기호 2024 ; 정희선과 김도영 2024). 또한, 연도별 더미 변수($\sum YEAR$)와 산업별 더미 변수($\sum IND$)를 포함하였다.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연속형 변수는 상위 및 하위 1%에서 윈저라이징(winsorizing)을 적용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설명은 <부록 A>에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2는 감사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법인세 계정의 핵심감사사항 보고와 BTD 간의 관계를 감사 시간이 조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식(3)을 이용한다.

$$\begin{aligned} DD_BTD(BTD)_{i,t} = & B_0 + B_1 KAM_TAX_{i,t} + B_2 HL_HOUR_{i,t} \\ & + B_3 KAM_TAX_{i,t} * HL_HOUR_{i,t} + \sum CONTROL \\ & + \sum YEAR + \sum IN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3)$$

여기서,

$HL_HOUR_{i,t}$ = t년도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평균 감사시간보다 높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 ;

B_2 가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 감사 시간이 충분히 투입된 기업에서 조세회피가 억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상호작용 항의 B_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면, 감사 시간이 법인세 관련 핵심감사사항 보고와 조세회피 행위 간의 관계를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B_3 가 유의하지 않다면 감사 시간이 핵심감사사항과 조세회피 행위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조세 회피 수준을 나타내는 *BTD*와 *DD_BTD*의 평균값은 각각 -0.005 와 -0.036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핵심감사사항 변수와 관련해서는, *KAM_NUM* 변수는 핵심감사사항의 보고 개수를 나타내며 평균값이 1.1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 기업이 평균적으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댓값은 7로 나타나 일부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AM_DUM* 변수는 핵심감사사항을 1개 이상 보고한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평균값은 0.839이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84%가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 1>의 Panel B 결과와 일치한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Variables	N	Mean	SD	Min	Q1	Median	Q3	Max
<i>BTD</i>	2,867	-0.005	0.147	-3.234	-0.034	0.005	0.050	0.758
<i>DD_BTD</i>	2,867	-0.036	0.136	-3.417	-0.075	-0.029	0.015	0.697
<i>KAM_NUM</i>	2,867	1.114	0.817	0	1	1	1	7
<i>KAM_DUM</i>	2,867	0.839	0.368	0	1	1	1	1
<i>KAM_TAX</i>	2,867	0.016	0.124	0	0	0	0	1
<i>HI_HOUR</i>	2,867	0.499	0.500	0	0	0	1	1
<i>SIZE</i>	2,867	19.486	1.511	15.750	18.430	19.173	20.246	26.178
<i>LEV</i>	2,867	0.422	0.201	0.020	0.258	0.418	0.571	1.450
<i>LOSS</i>	2,867	0.335	0.472	0	0	0	1	1
<i>MTB</i>	2,867	1.804	2.03	0.140	0.894	1.245	1.963	32.071
<i>CFO</i>	2,867	0.034	0.128	-3.753	-0.009	0.044	0.090	0.610
<i>BIG4</i>	2,867	0.351	0.477	0	0	0	1	1
<i>LN_FEE</i>	2,867	11.933	1.005	0	11.408	11.849	12.315	15.209
<i>LN_HOUR</i>	2,867	7.439	0.785	0	6.994	7.247	7.693	10.686
<i>PPE</i>	2,867	0.168	0.147	-0.094	0.055	0.141	0.248	2.102
<i>INTAN</i>	2,867	0.024	0.043	0	0.005	0.011	0.025	0.815
<i>ROA</i>	2,867	0.013	0.155	-2.496	-0.015	0.020	0.064	2.571
<i>EQINC</i>	2,867	-0.001	0.009	-0.190	0	0	0	0.168

표는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연속형 변수는 상위 및 하위 1%에서 윈저라이징(winsorizing)을 적용하였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KAM_TAX*의 평균값은 0.02로, 전체 표본 중 약 2%에 해당하는 58개 기업-연도에서 법인세 관련 계정을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법인세 관련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변수인 *HI_HOUR*의 평균값은 0.499로 전체 샘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산업 평균보다 높은 감사 시간을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BIG4*의 평균값은 0.351로 표본의 약 35%가 대형 회계법인(Big 4)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BTD*와 *DD_BTD*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두 변수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동함을 보여준다. 반면,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수준(*BTD*와 *DD_BTD*)과 주요 관심변수인 *KAM_TAX*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HI_HOUR*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복잡성을 인지하여 더 많은 감사 시간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KAM_TAX*와 *HI_HOUR* 간에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인세 계정을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한 기업일수록 감사인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계정의 복잡성과 높은 감사 위험을 반영하여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강화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i>BTD</i>	1.000															
(2) <i>DD_BTD</i>	0.970	1.000														
(3) <i>KAM_TAX</i>	0.043	0.032	1.000													
(4) <i>HI_HOUR</i>	-0.056	-0.065	0.014	1.000												
(5) <i>SIZE</i>	0.145	0.133	0.051	0.472	1.000											
(6) <i>LEV</i>	-0.165	-0.138	0.064	0.168	0.253	1.000										
(7) <i>LOSS</i>	-0.385	-0.319	0.017	-0.035*	-0.267	0.229	1.000									
(8) <i>MTB</i>	-0.157	-0.156	0.024	-0.031*	-0.240	-0.139	0.150	1.000								
(9) <i>CFO</i>	0.542	0.652	-0.028	0.003	0.208	-0.136	-0.371	-0.178	1.000							
(10) <i>BIG4</i>	0.014	0.006	0.031	0.465	0.498	0.102	-0.129	-0.061	0.064	1.000						
(11) <i>LN_FEE</i>	-0.001	-0.006	0.055	0.492	0.633	0.218	-0.090	-0.107	0.039**	0.450	1.000					
(12) <i>LN_HOUR</i>	0.043**	0.040**	0.066	0.582	0.792	0.268	-0.142	-0.153	0.091	0.547	0.873	1.000				
(13) <i>PPE</i>	0.073	0.084	0.018	0.116	0.267	0.275	-0.086	-0.116	0.133	0.110	0.123	0.182	1.000			
(14) <i>INTAN</i>	-0.027	-0.004	0.001	0.055	0.060	0.002	0.042**	0.107	0.022	0.043**	0.047**	0.051	-0.076	1.000		
(15) <i>ROA</i>	0.477	0.392	0.012	0.006	0.174	-0.185	-0.527	-0.079	0.410	0.077	0.030	0.064	0.088	-0.159	1.000	
(16) <i>EQINC</i>	0.097	0.082	0.004	0.019	0.060	-0.019	-0.146	-0.106	0.088	0.043**	0.022	0.046**	-0.001	0.007	0.187	1.000

표는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굵은 글씨는 significance 1%를 나타내며 **, *은 각각 5%, 10%를 나타냅니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2.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 포함 여부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가설 1 분석 결과)

<표 4>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식 (2)을 이용하여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 포함 여부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가설 1)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Column (1), (3)은 각각 종속변수 DD_BTD 와 BTD 에 대해 산업별 더미 변수와 연도별 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며, Column (2), (4)는 각각 종속변수 DD_BTD 와 BTD 에 대해 산업별 더미 변수와 연도별 더미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 Columns (1)과 (2)에서 $KAM_TAX_{i,t}(B_1)$ 회귀계수 값은 종속변수인 $DD_BTD_{i,t}$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B=0.056$ $p<0.01$; 0.041 , $p<0.10$). Columns (3)과 (4)에서 $KAM_TAX_{i,t}(B_1)$ 값은 종속변수인 $BTD_{i,t}$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B=0.068$ $p<0.01$; 0.054 , $p<0.01$). 이러한 결과는 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BTD)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핵심감사사항에 법인세 계정이 포함되는 경우 계정에 복잡성으로 인해 감사인이 주의 깊게 감사를 함에도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 포함 여부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가설 1)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D_BTD	DD_BTD	BTD	BTD
	(1)	(2)	(3)	(4)
<i>Intercept</i>	-0.001 (-0.033)	0.061* (1.778)	0.015 (0.373)	0.078** (2.033)
<i>KAM_TAX</i>	0.056*** (2.894)	0.041* (1.904)	0.068*** (3.251)	0.054** (2.362)
<i>SIZE</i>	-0.001 (-0.285)	-0.001 (-0.206)	0.002 (0.746)	0.002 (0.703)
<i>LEV</i>	-0.023 (-1.514)	-0.034** (-2.131)	-0.041** (-2.146)	-0.053*** (-2.690)
<i>LOSS</i>	-0.007 (-0.784)	-0.008 (-0.879)	-0.026** (-2.173)	-0.026** (-2.183)
<i>MTB</i>	-0.003** (-2.474)	-0.002 (-1.533)	-0.005*** (-2.634)	-0.003* (-1.749)
<i>CFO</i>	0.614*** (6.246)	0.618*** (6.097)	0.441*** (3.227)	0.450*** (3.214)

〈표 4〉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 포함 여부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가설 1) (계속)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i>DD_BT</i>	<i>DD_BT</i>	<i>BT</i>	<i>BT</i>
	(1)	(2)	(3)	(4)
<i>BIG4</i>	-0.013** (-2.207)	-0.011* (-1.945)	-0.015** (-2.235)	-0.012* (-1.909)
<i>LN_FEE</i>	-0.008** (-2.300)	-0.007** (-2.316)	-0.008** (-2.042)	-0.007** (-2.030)
<i>LN_HOUR</i>	0.010 (1.565)	0.007 (1.060)	0.007 (1.012)	0.003 (0.471)
<i>PPE</i>	0.001 (0.068)	0.002 (0.132)	-0.000 (-0.030)	0.003 (0.147)
<i>INTAN</i>	0.044 (0.803)	0.068 (1.244)	0.063 (0.971)	0.094 (1.499)
<i>ROA</i>	0.120*** (3.006)	0.119*** (2.948)	0.248*** (4.541)	0.245*** (4.483)
<i>EQINC</i>	-0.042 (-0.178)	-0.077 (-0.326)	-0.108 (-0.384)	-0.142 (-0.507)
Ind FE	NO	YES	NO	YES
Year FE	NO	YES	NO	YES
Observations	2,867	2,867	2,867	2,867
Adjusted R^2	0.450	0.460	0.388	0.396

표는 가설 1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Column (1)은 산업별 더미 변수와 연도별 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며 Column (2)는 산업별 더미 변수와 연도별 더미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 **, *은 각각 significance 1%, 5%, 10%를 나타낸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3. 산업평균 이상 감사시간이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 포함 여부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식 (3)을 사용하여 가설 1의 결과에 산업평균 이상의 감사 시간이 투입된 경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Column (1)과 (3)은 각각 종속변수 *DD_BT*와 *BT*에 대해 산업별 더미 변수와 연도별 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며 Column (2)와 (4)는 산업별 및 연도별 더미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5〉 산업평균 이상 감사시간이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 포함 여부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i>DD_BT</i>	<i>DD_BT</i>	<i>BT</i>	<i>BT</i>
	(1)	(2)	(3)	(4)
<i>Intercept</i>	-0.040 (-1.072)	0.003 (0.083)	-0.021 (-0.507)	0.023 (0.573)
<i>KAM_TAX</i>	0.094** (2.493)	0.083** (2.353)	0.112*** (2.797)	0.102*** (2.673)
<i>HI_HOUR</i>	-0.018*** (-3.275)	-0.022*** (-3.718)	-0.017*** (-2.820)	-0.020*** (-3.073)
<i>KAM_TAX*HI_HOUR</i>	-0.073* (-1.851)	-0.081** (-1.991)	-0.082** (-1.984)	-0.090** (-2.110)
<i>SIZE</i>	-0.001 (-0.214)	0.001 (0.208)	0.002 (0.824)	0.003 (1.059)
<i>LEV</i>	-0.023 (-1.480)	-0.031** (-1.975)	-0.041** (-2.116)	-0.051** (-2.568)
<i>LOSS</i>	-0.006 (-0.672)	-0.007 (-0.788)	-0.025** (-2.091)	-0.025** (-2.114)
<i>MTB</i>	-0.003** (-2.302)	-0.003* (-1.725)	-0.005** (-2.516)	-0.004* (-1.893)
<i>CFO</i>	0.612*** (6.214)	0.617*** (6.080)	0.439*** (3.209)	0.449*** (3.204)
<i>BIG4</i>	-0.009 (-1.461)	-0.006 (-1.156)	-0.011 (-1.619)	-0.008 (-1.251)
<i>LN_FEE</i>	-0.008** (-2.387)	-0.008** (-2.472)	-0.008** (-2.130)	-0.008** (-2.176)
<i>LN_HOUR</i>	0.016** (2.451)	0.014** (2.302)	0.013* (1.801)	0.011 (1.502)
<i>PPE</i>	0.002 (0.186)	0.006 (0.404)	0.001 (0.073)	0.007 (0.372)
<i>INTAN</i>	0.051 (0.939)	0.068 (1.301)	0.070 (1.086)	0.095 (1.539)
<i>ROA</i>	0.121*** (3.012)	0.117*** (2.899)	0.248*** (4.550)	0.244*** (4.442)
<i>EQINC</i>	-0.045 (-0.190)	-0.071 (-0.295)	-0.111 (-0.398)	-0.137 (-0.486)
Ind FE	NO	YES	NO	YES
Year FE	NO	YES	NO	YES
Observations	2,867	2,867	2,867	2,867
Adjusted R^2	0.454	0.464	0.391	0.400

표는 가설 2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Column (1)과 (3)은 각각 종속변수 *DD_BT*와 *BT*에 대해 산업별 더미 변수와 연도별 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며 Column (2)와 (4)는 산업별 및 연도별 더미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를 보여준다. ***, **, *은 각각 significance 1%, 5%, 10%를 나타낸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Columns (1)과 (2)에서 $HL_HOUR_{i,t}(B_2)$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DD_BTD_{i,t}$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다($B = -0.018$ $p < 0.01$; -0.022 , $p < 0.01$). 마찬가지로, Columns (3)과 (4)에서 $HL_HOUR_{i,t}(B_1)$ 회귀계수가 종속변수인 $BTD_{i,t}$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B = -0.017$ $p < 0.01$; -0.020 , $p < 0.01$). 또한, Columns (1)과 (2)의 $KAM_TAX_{i,t} * HL_HOUR_{i,t}(B_3)$ 회귀계수가 $DD_BTD_{i,t}$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다($B = -0.073$ $p < 0.10$; -0.081 , $p < 0.05$). Columns (3)과 (4)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B = -0.082$ $p < 0.05$; -0.090 , $p < 0.05$).

이러한 결과는 핵심감사사항에 법인세 계정이 포함된 경우 감사인이 계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완화할 수 있는 조절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충분한 감사 시간을 투입하면 감사인이 경영진의 조세회피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추가분석

1. 강건성 분석

본 절에서는 주요 변수의 비율이 전체 표본의 1.6%로 매우 적어 처치군(Treatment group ; $KAM_TAX=1$)과 대조군(Control group ; $KAM_TAX=0$) 사이의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엔트로피 균형화 테스트(Entropy Balancing Test)를 실시하였다(Hainmueller 2012). 이 방법은 가중치(weighting)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으로, 관찰 데이터의 처치군과 대조군(Control group) 간 공변량 균형을 맞추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적은 샘플로 인한 연구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표 6>의 Panel A는 엔트로피 균형화 전 처치군과 대조군의 기술 통계량을 Panel B는 엔트로피 균형화 후의 기술 통계량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Panel A와 Panel B를 비교한 결과, 엔트로피 균형화 이후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기술 통계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는 엔트로피 균형화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Panel C는 엔트로피 균형화를 수행한 후 본 연구의 주요 가설 1, 2를 모두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엔트로피 균형화 이전의 주요 분석 결과와 일치하며 모든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요 분석의 강건성이 확인되었으며 엔트로피 균형화 방법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표 6〉 엔트로피 밸런싱 (Entropy balancing)

Panel A. 엔트로피 밸런싱 전 기술통계량									
Variables	Treatment			Control			Mean	Variance	Skewness
	Mean	Variance	Skewness	Mean	Variance	Skewness			
<i>SIZE</i>	20.100	3.439	0.611	19.480	2.259	1.109			
<i>LEV</i>	0.525	0.044	0.140	0.421	0.040	0.224			
<i>LOSS</i>	0.400	0.246	0.408	0.334	0.223	0.703			
<i>MTB</i>	2.183	10.960	5.463	1.798	4.015	6.483			
<i>CFO</i>	0.005	0.016	-1.206	0.034	0.016	-10.280			
<i>BIG4</i>	0.467	0.255	0.134	0.349	0.227	0.632			
<i>LN_FEE</i>	12.370	1.074	0.500	11.930	1.007	-3.705			
<i>LN_HOUR</i>	7.848	0.993	0.704	7.433	0.609	-0.429			
<i>PPE</i>	0.189	0.031	1.124	0.168	0.022	2.073			
<i>INTAN</i>	0.024	0.002	4.297	0.024	0.002	6.230			
<i>ROA</i>	0.027	0.009	-0.535	0.013	0.024	1.141			
<i>EQINC</i>	0.000	0.000	-5.219	-0.001	0.000	-5.675			
<i>N</i>	45			2,822					

표는 엔트로피 밸런싱 전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 포함한 기업(i.e., $KAM_TAX=1$)과 포함하지 않은 기업($KAM_TAX=0$)인 기업 간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다.

〈표 6〉 엔트로피 밸런싱 (Entropy balancing) (계속)

Panel B. 엔트로피 밸런싱 후 기술통계량											
Variables	Treatment						Control				
	Mean	Variance	Skewness	Mean	Variance	Skewness	Mean	Variance	Skewness		
<i>SIZE</i>	20.100	3.439	0.611	20.100	3.777	0.699					
<i>LEV</i>	0.525	0.044	0.140	0.525	0.044	0.317					
<i>LOSS</i>	0.400	0.246	0.408	0.400	0.240	0.408					
<i>MTB</i>	2.183	10.960	5.463	2.183	12.420	5.532					
<i>CFO</i>	0.005	0.016	-1.206	0.005	0.100	-9.631					
<i>BIG4</i>	0.467	0.255	0.134	0.467	0.249	0.134					
<i>LN_FEE</i>	12.370	1.074	0.500	12.370	1.184	-1.412					
<i>LN_HOUR</i>	7.848	0.993	0.704	7.848	0.872	0.915					
<i>PPE</i>	0.189	0.031	1.124	0.189	0.025	2.018					
<i>INTAN</i>	0.024	0.002	4.297	0.024	0.001	4.794					
<i>ROA</i>	0.027	0.009	-0.535	0.027	0.074	6.588					
<i>EQINC</i>	0.000	0.000	-5.219	0.000	0.000	0.419					
<i>N</i>	45						2,822				

표는 엔트로피 밸런싱 후 범인세 재정 핵심감사사항 포함한 기업(i.e., $KAM_TAX=1$)과 포함하지 않은 기업($KAM_TAX=0$)인 기업 간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다.

〈표 6〉 엔트로피 밸런싱 (Entropy balancing) (계속)

Panel C. 엔트로피 밸런싱 표본을 이용한 가설 재 검증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H1		H2	
	<i>DD_BT</i> (1)	<i>BT</i> (2)	<i>DD_BT</i> (3)	<i>BT</i> (4)
<i>Intercept</i>	0.129 (1.213)	0.164 (1.403)	-0.071 (-0.701)	-0.031 (-0.262)
<i>KAM_TAX</i>	0.052^{***} (2.756)	0.067^{***} (3.202)	0.086^{***} (3.051)	0.106^{***} (3.320)
<i>HI_HOUR</i>			-0.039^{**} (-2.534)	-0.031 (-1.615)
<i>KAM_TAX*HI_HOUR</i>			-0.078^{**} (-2.425)	-0.087^{**} (-2.289)
<i>SIZE</i>	-0.011 (-0.861)	-0.011 (-0.707)	-0.010 (-0.844)	-0.011 (-0.672)
<i>LEV</i>	-0.109 ^{**} (-2.141)	-0.146 ^{**} (-2.508)	-0.084 [*] (-1.672)	-0.121 ^{**} (-2.025)
<i>LOSS</i>	-0.006 (-0.300)	-0.022 (-0.986)	-0.010 (-0.502)	-0.026 (-1.127)
<i>MTB</i>	0.000 (0.144)	-0.000 (-0.095)	-0.001 (-0.532)	-0.001 (-0.617)
<i>CFO</i>	0.737 ^{***} (9.179)	0.627 ^{***} (5.423)	0.743 ^{***} (9.404)	0.634 ^{***} (5.545)
<i>BIG4</i>	-0.022 [*] (-1.719)	-0.025 (-1.609)	-0.018 (-1.376)	-0.021 (-1.278)

〈표 6〉 엔트로피 밸런싱 (Entropy balancing) (계속)

Panel C. 엔트로피 밸런싱 표본을 이용한 가설 재 검증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			
		H1		H2	
Variables		<i>DD_BT</i> (1)	<i>BT</i> (2)	<i>DD_BT</i> (3)	<i>BT</i> (4)
<i>LN_FEE</i>		-0.016 (-1.418)	-0.013 (-1.055)	-0.011 (-1.062)	-0.008 (-0.665)
<i>LN_HOUR</i>		0.046* (1.854)	0.044 (1.378)	0.067*** (2.794)	0.063** (2.024)
<i>PPE</i>		-0.153*** (-2.723)	-0.176*** (-3.002)	-0.141*** (-2.778)	-0.163*** (-2.932)
<i>INTAN</i>		0.052 (0.384)	0.021 (0.131)	0.054 (0.471)	0.027 (0.191)
<i>ROA</i>		0.081* (1.878)	0.146*** (2.603)	0.079* (1.770)	0.144** (2.421)
<i>EQINC</i>		-0.254 (-0.647)	-0.231 (-0.513)	-0.320 (-0.739)	-0.297 (-0.606)
Ind FE	YES	YES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2,867	2,867	2,867	2,867	2,867
Adjusted R^2	0.754	0.754	0.666	0.768	0.680

표는 엔트로피 밸런싱(Entropy balancing)을 통한 균형 표본을 이용해 가설을 재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Column (1)과 (2)은 각각 종속변수 *DD_BT*와 *BT*에 대해 가설 1을 재검증한 결과이다. Column (3)과 (4)는 각각 종속변수 *DD_BT*와 *BT*에 대해 가설 2를 재검증한 결과이다. ***, **, *은 각각 significance 1%, 5%, 10%를 나타낸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표 7>은 하위 표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감사사항(KAM)을 보고한 표본($KAM_DUM=1$)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재 검증하였다. 하위 표본 분석은 본 연구의 가설 1, 2에 대한 검증을 다시 수행하여 표본의 제한적 특성으로 인한 연구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표본에서도 주요 분석에서 도출된 가설 1, 2가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강건하며 연구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추가적 증거를 제공한다.

<표 7> 하위 표본 분석 (Sub-sample tes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H1		H2	
	<i>DD_BT</i>	<i>BT</i>	<i>DD_BT</i>	<i>BT</i>
	(1)	(2)	(3)	(4)
<i>Intercept</i>	0.055 (1.453)	0.075* (1.779)	0.002 (0.051)	0.023 (0.546)
<i>KAM_TAX</i>	0.042* (1.923)	0.054** (2.344)	0.086** (2.390)	0.103*** (2.687)
<i>HI_HOUR</i>			-0.019*** (-3.113)	-0.018*** (-2.590)
<i>KAM_TAX*HI_HOUR</i>			-0.084** (-2.104)	-0.094** (-2.220)
Controls	YES	YES	YES	YES
Ind FE	YES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2,404	2,404	2,404	2,404
Adjusted R^2	0.482	0.404	0.486	0.408

표는 핵심감사사항(KAM)을 보고한 표본($KAM_DUM=1$)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Column (1)과 (2)은 각각 종속변수 *DD_BT*와 *BT*에 대해 가설 1을 재검증한 결과이다. Column (3)과 (4)는 각각 종속변수 *DD_BT*와 *BT*에 대해 가설 2를 재검증한 결과이다. ***, **, *은 각각 significance 1%, 5%, 10%를 나타낸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2. Big 4 vs non-Big 4

대형 회계법인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높은 감사 품질을 제공하며, 감사 실

패 시 명성 훼손과 소송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형 회계법인(Big 4) 이 감사인인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 되었다(Donohoe and Knechel 2014 ; Kanagaretnam et al. 2016). 이와 같은 경향은 국내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정희 등(2023)은 Big 4 감사인인 경우 기업의 조세 회피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정희선과 김도영(2024)의 연구에서도 신외감법 도입 이후 Big 4 감사인의 감사인 교체로 인한 독립성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Big 4 감사인이 신외감법 도입 이전부터 적절한 조세회피 감시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실증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도 Big 4 감사인이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발견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Big 4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법인세 계정을 포함한 경우 해당 계정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non-Big 4 감사인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추가 분석에서는 메인 분석에서 발견한 결과가 Big 4 감사인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고 non-Big 4 감사인의 경우에만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Big 4와 non-Big 4 감사인으로 나누어 주요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표 8>의 Column (1)과 (2)는 가설 1을, Column (3)과 (4)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Big 4 vs non-Big 4 (횡단면 분석)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i>DD_BT</i>			
	<i>BIG4</i>	<i>NON-BIG4</i>	<i>BIG4</i>	<i>NON-BIG4</i>
	(1)	(2)	(3)	(4)
<i>Intercept</i>	-0.018 (-0.236)	0.080 (1.176)	-0.048 (-0.685)	0.002 (0.022)
<i>KAM_TAX</i>	0.011 (0.405)	0.063** (2.132)	-0.006 (-0.095)	0.084** (2.288)
<i>HI_HOUR</i>			-0.035*** (-2.586)	-0.015** (-2.116)
<i>KAM_TAX*HI_HOUR</i>			0.015 (0.211)	-0.089** (-2.101)
Controls	YES	YES	YES	YES
Ind FE	YES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007	1,860	1,007	1,860
Adjusted <i>R</i> ²	0.555	0.412	0.559	0.414

표는 추가분석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Column (1)과 (2)는 가설 1을, Column (3)과 (4)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 **, *은 각각 significance 1%, 5%, significance 10%를 나타낸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Column (2)와 (4)의 결과에 따르면, 가설 1에서 KAM_TAX 와 가설 2에서 KAM_TAX*HI_HOUR 의 주요 효과는 non-Big 4 감사인 표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는 핵심감사사항으로 법인세 관련 계정을 공시한 감사인이 해당 계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의 조세회피를 적절히 억제하지 못한 사례가 주로 non-Big 4 감사인 표본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며 Big 4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 품질을 통해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3. 증감분석 : 포함 전 기간, 포함 기간, 포함 후 기간에 따른 조세회피의 변화

본 절에서는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에 포함되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업이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을 포함하기 전과 포함한 기간, 그리고 이후 기간을 비교하는 증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에 포함된 여부(KAM_TAX)에 따라 분석 기간을 포함 전(Before), 포함 기간(During), 포함 후(After)로 기간을 구분하였다. 이후 아래 연구모형식 (4)를 통해 각 기간별 조세회피 수준(DD_BTD, BTD)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DD_BTD(BTD)_{i,t} = B_0 + B_1 DURING_KAM_TAX_{i,t} + B_2 AFTER_KAM_TAX_{i,t} + \sum CONTROL + \sum YEAR + \sum IND + \epsilon_{i,t} \quad (4)$$

여기서,

$DURING_KAM_TAX_{i,t}$ = t년도 해당 기업이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KAM_TAX)를 포함 전 일 경우 0, 포함 기간 일 경우 1을 가지는 변수.

$AFTER_KAM_TAX_{i,t}$ = t년도 해당 기업이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KAM_TAX)를 포함 전 일 경우 0, 포함 기간 후 일 경우 1을 가지는 변수.

따라서, $DURING_KAM_TAX_{i,t}(AFTER_KAM_TAX_{i,t})$ 의 회귀계수가 포함 기간에 유의미한 양 (+)을 가진다면 이는 포함 기간 일 경우 (포함 기간 후 일 경우) 포함 전에 비해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에 포함될 때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커진다는 가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의 Column (1)과 (2)는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포함 기간($DURING_KAM_TAX$)에서 종속변수인 $DD_BTD(BTD)_{i,t}$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B=0.041$ $p<0.10$; 0.055 , $p<0.05$). 반면, 포함 후 기간에서는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는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활용해 각 기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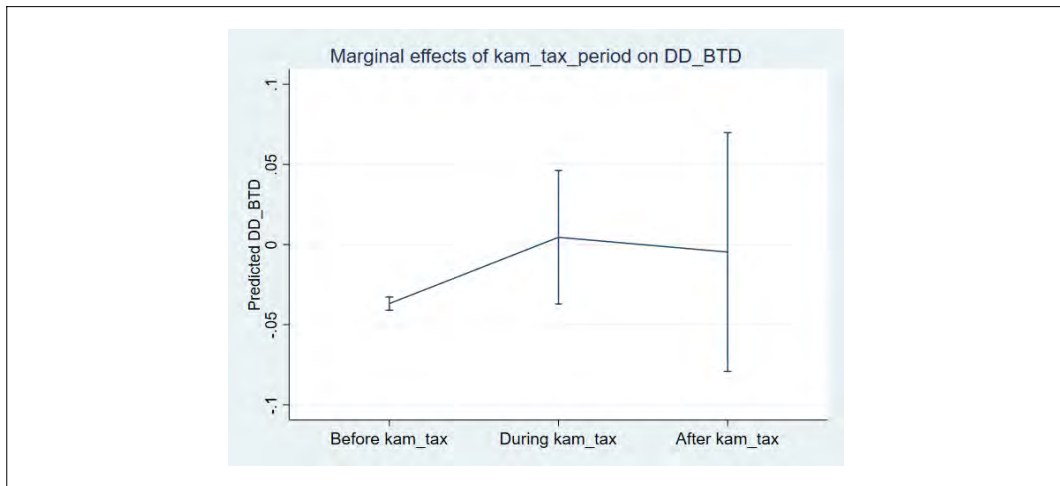
〈표 9〉 증감분석 : 포함 전 기간, 포함 기간, 포함 후 기간에 따른 조세회피의 변화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i>DD_BT</i> D	<i>BT</i> D
	(1)	(2)
Intercept	0.061* (1.793)	0.079** (2.050)
<i>DURING_KAM_TAX</i>	0.041* (1.919)	0.055** (2.377)
<i>AFTER_KAM_TAX</i>	0.032 (0.844)	0.040 (0.963)
<i>SIZE</i>	-0.001 (-0.207)	0.002 (0.702)
<i>LEV</i>	-0.034** (-2.146)	-0.054*** (-2.704)
<i>LOSS</i>	-0.008 (-0.879)	-0.026** (-2.184)
<i>MTB</i>	-0.002 (-1.545)	-0.003* (-1.762)
<i>CFO</i>	0.619*** (6.100)	0.451*** (3.215)
<i>BIG4</i>	-0.011* (-1.928)	-0.012* (-1.890)
<i>LN_FEE</i>	-0.007** (-2.340)	-0.007** (-2.059)
<i>LN_HOUR</i>	0.007 (1.076)	0.003 (0.489)
<i>PPE</i>	0.002 (0.147)	0.003 (0.162)
<i>INTAN</i>	0.066 (1.217)	0.092 (1.469)
<i>ROA</i>	0.118*** (2.932)	0.244*** (4.470)
<i>EQINC</i>	-0.075 (-0.316)	-0.139 (-0.498)
Ind FE	YES	YES
Year FE	YES	YES
Observations	2,867	2,867
Adjusted R^2	0.460	0.396

표는 포함 전 기간, 포함 기간, 포함 후 기간에 따른 조세회피의 변화를 나타낸다. Column (1)과 (2)는 각각 종속변수 *DD_BT*D와 *BT*D에 대한 결과이다. ***, **, *은 각각 significance 1%, 5%, significance 10%를 나타낸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 A>에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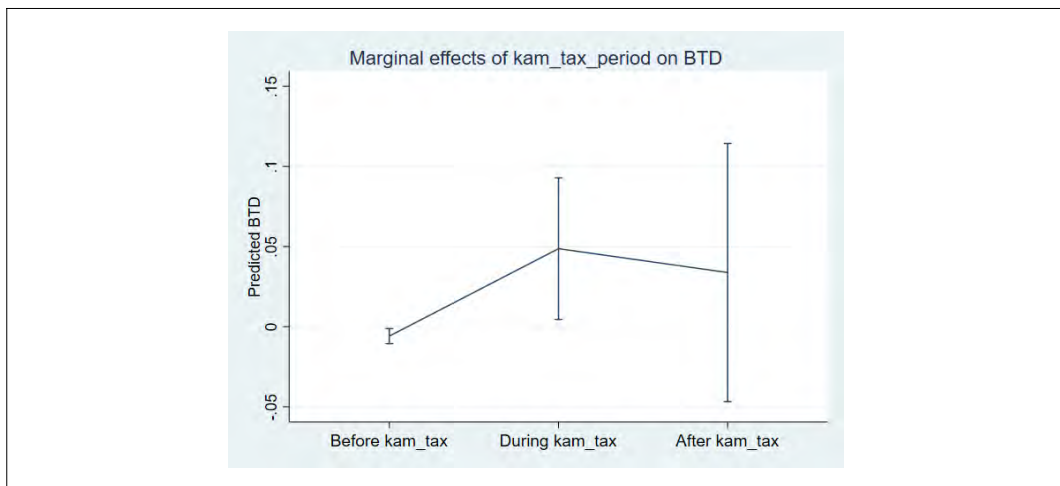
분석 결과, 포함 기간 (*DURING_KAM_TAX*)에서 종속변수인 $DD_BTD(BTD)_{i,t}$ 에 대해 다른 기간에 비해 조세회피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는 포함 전이나 포함 후에 비해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 각 기간별 한계 효과 (Marginal effects) (DD_BTD)



그래프는 Panel A의 Column (1) 회귀분석 결과로 DD_BTD 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각 기간별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2〉 각 기간별 한계 효과 (Marginal effects) (BTD)



그래프는 Panel A의 Column (2) 회귀분석 결과로 DD_BTD 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각 기간별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될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정보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 관련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BTD)와 발생액에 연도 및 산업별로 회귀분석하여 추정된 잔차(DD_BT D)를 통해 측정된 조세회피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 노력이 산업 평균을 초과할 경우 이러한 조세회피의 증가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감사인이 Non-Big 4 회계법인인 경우,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에서 조세회피 확대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헌적 및 실무적 공헌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와 세무 당국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되는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핵심감사사항이 기업의 조세 행태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2017년 회계감사 기준 개정을 통해 모든 상장회사에 도입된 핵심감사사항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핵심감사사항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다룬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연구들의 결과 또한 일관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직접 핸드컬렉션(hand-collection)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감사사항에서 법인세 주요 사항의 기재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핵심감사사항 제도의 도입 여부나 기재 개수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확장하는 동시에 선행 연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공헌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핵심감사사항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정보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공헌점을 제공한다.

둘째, 법인세 계정을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한 기업에서 BTD와의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감사인의 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회계 및 세무 간 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추가분석을 통해 감사인이 Non-Big 4 회계법인인 경우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에서 BTD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는 Non-Big 4 감사인이 조세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이 감사인의 전문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Non-Big 4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핵심감사사항(KAM)의 법인세 계정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핵심감사사항 항목 제목(예 : 이연법인세자산 등)을 바탕으로 법인세 계정 관련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핵심감사사항 선정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법인세 계정과 관련된 핵심감사사항이 조세회피와 가지는 정보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핸드컬렉션(hand-collection)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소 제한적인 기업-연도별 표본을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 계정 관련 핵심감사사항이 존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로 인한 실증 결과의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강건성 분석으로 엔트로피 균형화(Entropy balancing)과 하위 표본 테스트(Sub-sample test)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결과의 강건성을 강화하였다.

참고문헌

- 김선미 · 유승원 · 홍준용. 2020.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이익 조정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5호 : 193-220.
- 김상현 · 백원선. 2006. 재무보고비용과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93-224.
- 마희영. 2021.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6권 제1호 : 137-169.
- 박미영. 2012.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 박종일 · 이병희 · 이윤정. 2024.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가?.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 9-59.
- 박종일 · 이윤정. 2024. 감사노력이 ESG 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 9-51.
- 박한순 · 이종필 · 정균채. 2013. 감사노력과 기업의 조세회피. 회계와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 227-249.
- 배성호 · 오광욱. 2016. 외부감사인의 노력과 조세절감 성향간의 관련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 63-91.
- 서반석 · 김갑순. 2024. 대리인 비용이 조세회피와 투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25권 제6호 : 101-131.
- 신혜정 · 김수인. 2019. 핵심감사제도 도입이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8권 제2호 : 149-171.
- 이혜영 · 최기호. 2024. 교차상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 155-190.
- 양가보 · 정주렴. 2023. 핵심감사제 도입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5권 제1호 : 61-94.
- 인창열 · 이명곤. 2019.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3호 : 101-146.
- 임유니 · 김종일. 2019.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 95-116.
- 정기위 · 채수준. 2022. 핵심감사제 도입의 차별적인 효과 : 감사보수와 감사인 규모를 중심으로. 회계와 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 31-53.
- 정희선 · 김도영. 2024. 신외감법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친 영향 : 감사인 교체기업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 9-38.
- 주인기 · 최원욱 · 염지인. 2005. 이익 조정 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237-275.

- 하미혜 · 이용석 · 박희진. 2018. 수주산업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에 관한 연구 : 효익과 비용 분석. 회계와 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 151-180.
- Blaylock, B., T. Shevlin, and R. J. Wilson. 2012. Tax avoidance, large positive temporary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persistence. *The Accounting Review*, 87(1) : 91-120.
-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 183-199.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 145-179.
- Desai, M. and D. Dharmapala. 2008. Tax and corporate governance : an economic approach. In : Schön, W. (Ed.), *Tax and Corporate Governance*. Springer-Verlag, Berlin : 13-30.
- Desai, M., I. Dyck, and L. Zingales. 2007. Theft and tax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 : 591-623.
- Frank, M. M., L. J. Lynch, and S. O. Reg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2) : 467-496.
- Hainmueller, J. 2012. Entropy balancing for causal effects : A multivariate reweighting method to produce balanced samples in observational studies. *Political Analysis*, 20(1) : 25-46.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 137-166.
-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 127-178.
- Hoopes, J. L., P. T. Langetieg, E. L. Maydew, and M. S. Mullaney. 2024. Are private firms more aggressive tax planners? *The Accounting Review*, 99(4) : 197-223.
- IAASB. 2015. 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 701 : Communicating Key Audit Matter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January.
- Joos, P., J. Pratt, and S. Young. 2000. Book-tax differences and the pricing of earnings. Working Paper, MIT.
- Kanagaretnam, K., J. Lee, C. Y. Lim, and G. J. Lobo. 2016. Relation between auditor quality and tax aggressiveness : Implications of cross-country institutional differenc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5(4) : 105-135.
- McGuire, S. T., T. C. Omer, and D. Wang. 2012. Tax avoidance :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3) : 975-1003.
- Mills, L. F., and K. J. Newberry.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1) : 1-19.

- Phillips, J. 2003. Corporate tax-planning effectiveness : the role of compensation-based incentives. *The Accounting Review*, 78 : 847-874.
- Phillips, J., M. Pincus, and S. O.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 491-521.
- Reid, L. C., J. V. Carcello, C. Li, T. L. Neal, and J. R. Francis. 2019. Impact of auditor report changes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audit costs :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6(3) : 1501-1539.
- Slemrod, J. 2004. The economics of corporate tax selfishness. *National Tax Journal*, 57 : 877-899.
- Vanstraelen, A., C. Schelleman, R. Meuwissen, and I. Hofmann. 2012. The audit reporting debate : Seemingly intractable problems and feasible solutions. *European Accounting Review*, 21(2) : 193-215.
- Wei, Y., N. Fargher, and E. Carson. 2017. Benefits and costs of the enhanced auditor's report : Early evidence from Australia.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1) : 308-335.

Key Audit Matters and Tax Avoidance

: The Informational Value of Tax Accounts and the Role of Auditors

Grace Goun Kim* · Kyeongheum Ra** · Won-Wook Choi***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porting of tax-related accounts as Key Audit Matters (KAM) provides informational value regarding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KAMs represent issues deemed particularly significant by auditors during the audit period, and the inclusion of tax accounts indicates their complexity or high level of uncertainty. The study predicts that the inclusion of tax accounts in KAMs provides informational usefulness about the Book-Tax Difference (BTD) of firms. The sample consists of listed firms that reported tax-related accounts as KAMs between 2020 and 2022,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KAM reporting under revised auditing standards (ISA 701-8).

Our finding is following three main results. First, that firms reporting tax-related accounts as KAMs exhibited significantly larger BTDs compared to those that did not. Second, greater auditor effort, measured as above - industry - average levels, reduced the BTD. Furthermore, for firms audited by non-big 4 firms, the effect of KAM reporting on BTD was more pronounced, suggesting challenges in detecting tax avoidance strategi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KAM reporting provides critical information about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serving as an important signal to stakeholders and tax authorities about potential tax risks. It highlights that audit reports can function as valuable tools not only for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but also for evaluating corporate tax practices. In addition, the study confirms that increased auditor effort can mitigate tax avoidance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enhanc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audit quality of non-big 4 firms.

〈Key words〉 Key Audit Matters (KAM), Tax avoidance, Book-Tax difference (BTD), Information role of audit report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cpa_gracekim@yonsei.ac.kr, First Autho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rkh3434@yonsei.ac.kr,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wonchoi@yonsei.ac.kr, Co-author

〈부록 A〉 변수 정의

변 수	정 의
<i>BTD</i>	t 년도 (세전이익 - 과세소득) / 기초 총자산.
<i>DD_BT</i>	t 년도 <i>BTD</i> 를 발생액에 연도 및 산업별로 회귀분석하여 추정된 잔차.
<i>KAM_NUM</i>	t 년도 당기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을 공시한 개수.
<i>KAM_DUM</i>	t 년도 당기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을 공시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
<i>KAM_TAX</i>	t 년도 당기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에 “법인세” 관련 항목을 공시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
<i>DURING_KAM_TAX</i>	t 년도 해당 기업이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i>KAM_TAX</i>)를 포함 전 일 경우 0, 포함 기간 일 경우 1를 가지는 변수.
<i>AFTER_KAM_TAX</i>	t 년도 해당 기업이 법인세 계정 핵심감사사항(<i>KAM_TAX</i>)를 포함 전 일 경우 0, 포함 기간 후 일 경우 1를 가지는 변수.
<i>HI_HOUR</i>	t 년도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평균 감사시간보다 높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
<i>SIZE</i>	t 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i>LEV</i>	t 년도 부채비율(총부채 / 총자산).
<i>LOSS</i>	t 년도 당기순이익이 0 이하 일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i>MTB</i>	t 년도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
<i>CFO</i>	t 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초 총자산.
<i>BIG4</i>	t 년도 외부 감사인이 4대 대형 회계 법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속할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i>LN_FEE</i>	t 년도 감사보수의 자연 로그 값.
<i>LN_HOUR</i>	t 년도 감사시간의 자연 로그 값.
<i>PPE</i>	t 년도 (유형자산 - 토지 - 건설중인자산) / 기초 총자산.
<i>INTAN</i>	t 년도 (무형자산 / 총자산).
<i>ROA</i>	t 년도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i>EQINC</i>	t 년도 (지분법관련손익 / 기초총자산).

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를 제시한다.

〈부록 B〉 2021년 LG디스플레이(주) 사업보고서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문서목차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7. 기타 참고사항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재무제표
-5. 재무제표 주석
-6. 배당에 관한 사항
-7. 종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7기(당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유형자산 개정이준서 조기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효과를 소급 적용	1. 디스플레이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검사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제36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1. 디스플레이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검사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제35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1. 비금융자산의 손상 평가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주1) 감사대상 종속기업은 제37기, 제36기, 제35기 모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첨부된 예시는 2021년 LG디스플레이(주)의 사업보고서에서 발췌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섹션 내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LG디스플레이의 제37기(당기)에 대해 다음 두 가지 핵심감사사항(KAM)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 (1) 디스플레이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검사,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